

## 복음과 율법 9강.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율법과 복음’의 혼동

2. ‘율법과 복음’을 혼동할 때, ‘신앙은 나 하기에 달려 있다’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자기의 쌓기)으로 가게 됩니다.

3. 자기 의란? 겸비함으로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이 목표가 됩니다.

### 4. 율법이란 무엇인가?

- 명령 :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If, 만일 / then, 그러면)
-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한 축복과 저주가 나에게 결부되어 있음.
-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요구하는데 행위만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율법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허물어 버립니다.
-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능합니다.

### \* 존 갈뱅이 정리한 율법의 3가지 기능

- 율법의 제1 기능 : ‘정죄의 기능’으로 죄를 정죄함으로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능
- 율법의 제2 기능 : ‘억제의 기능’으로 죄와 악행을 억제 시키는 기능
- 율법의 제3 기능 : ‘교훈적, 교육적 기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

### 5. 복음이란 무엇인가?

- 약속 :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래서 너는 살았다.” (because, 때문에) / therefore, 그러므로)
-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한 축복과 저주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에 있음.
- 복음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사실’

### 6. 신자의 정체성 = 죄에 대해 죽은 자(예수 안에서, 나의 밖에서)

- 완전주의가 아님

- 죄에 대해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임
-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임

### 7. 신자의 정체성 =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 그러므로 신자를 대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여기십니다.

### 8. 그리스도와 연합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 목적임.

새 생명 = 부활 생명 =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해 산 생명

- 죽은 나무는 싹도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존재에서 산 자입니다.

### 9. 죄에 대해 죽은 신자가 왜 죄를 짓는가?

- 죄의 몸(죽을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임
- 죄의 몸과 옛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 \* 옛 사람: 회심 이전에 첫 사람 아담과 연합된 것으로 율법 아래 있던 사람
  - \*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장사지냈다’ 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10. 옛 사람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몸(죽을 몸)에 잔존하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음
  - 그러니 신자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음(롬 8:23)
- 구원받은 영혼 + 부활하게 될 몸 → 구원의 완성

### 11. 죄는 새 사람이란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죄의 몸(죽을 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롬6:12)

- 신자 =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고후 5:17)
-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 있는 신자의 몸 : 죄의 몸, 죽을 몸
- 죄의 몸(죽을 몸)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를 짓습니다.

### 12. 그렇기 때문에 롬 6: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는 명령이 있는데 그러나 이는 구원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롬 6: 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데 우리 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자만이 십자가에서 부활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죄의 실체를 알고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짚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과 접목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지나친 회의와 영적 낙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에, 죄를 지었을 때 신자는 마땅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언제나 복음적인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좌절과 자기 연민 같은 패배주의, 지나친 회의와 영적 좌절과 낙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벌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무한히 자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능력이 능히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적 회개와 달리 복음적 회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도 바울께서는 롬 6: 11절에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날마다, 심지어 죄를 지은 순간에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 만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아니듯이 죄를 지은 순간도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거듭하여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에게만 주신 축복으로 롬 8:1절에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 하면서 롬 8:33-34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선언’을 오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양심이 화인 맞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롬 6:6에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

니” 라는 ‘목적’ 을 밝힘으로 예수께 속한 자라면 믿음으로는 자신이 예수께 속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죄에게 종 노릇 하면 안 되겠죠? 또 22절에는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 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산 자라면, 비유로 자주 얘기한 나무라면 우리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분명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회개도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복음을 적용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라는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세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는 전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수영을 배우려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꼭 필요할 것 같아 가까운 수영장에 배우러 갔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수영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강사 조차 포기를 했고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는 제가 어린 시절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중학생 때는 가족들과 강물에 물놀이를 갔다가 제 동생이 소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수영도 못하는 제가 동생을 건져 내가 함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그때, 아찔한 트라우마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몸이 굳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대한 해협을 건너라고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죠? 그건 배를 타는 겁니다. 제가 배 안에 있으면 저의 수영 실력과 관계 없이 건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가 훌륭하게 살 때나, 그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5-39)